**EMBI사례**

1)

글로벌 금융시장 내 위험회피 성향이 완화되는 모습이다.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EMBI+(Emerging Market Bond Index+) 스프레드가 지난 1월 초 고점(440) 형성 이후 현재 364(4월15일)까지 하락했다.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까.

(중략) 신흥시장 내 위험자산 선호가 이어지려면 달러 약세가 동반돼야 한다. 미국 정책금리가 연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 간 통화정책 및 펀더멘털의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달러는 완만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.

‘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경향 지속될까?’ <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1VHYQKD6LC>

2)

두바이 쇼크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한국 증시의 향방을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. 전문가들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 지속성을 살펴볼 수 있는 △달러화 지수 △이머징 채권가산금리(EMBI) 스프레드 △유럽 공포지수(V stoxx) 등 3개 지표를 꼽는다. 이들 지표는 모두 유럽계 자금 등 글로벌 유동성 동향과 관련이 깊다.

‘한숨돌린 증시 3대지표가 문제네’ <https://www.mk.co.kr/news/stock/view/2009/11/617857/>

**EMBI지수**

신흥시장 채권지수. 신흥시장과 미국 시장 간의 채권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는 위험지수. 채권의 수익률이 그 나라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읽힌다는 게 기본 베이스. 따라서 EMBI Spread가 확대된다는 것은 위험자산인 신흥시장을 매수하지 않고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을 매수할 경우 나타나게 됨.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현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는 증거.

<http://blog.naver.com/PostView.nhn?blogId=hsw0548&logNo=221312842925&categoryNo=17&parentCategoryNo=14&viewDate=&currentPage=1&postListTopCurrentPage=1&from=postView&userTopListOpen=true&userTopListCount=30&userTopListManageOpen=false&userTopListCurrentPage=1> 정리가 잘되어 있어요 : )